

山村地域의 人口變化過程과 過疎化에 관한 研究

孫 詒 鑄¹ · 尹 汝 昌²

A Study on the Population Change Pattern and Depopulation in Mountain-Village Area

Cheol Ho Shon¹ and Yeo Chang Youn²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velopment trends in mountain areas in Korea where there are more potentials in the development of forest resources, by analysing the population-related data for the 1968-1990 period.

The population changes of 900 rural sub-counties, of which the boundaries have not been changed, were examined, and the trends in population movement and the degree of depopulation were analysed.

The result of study reveals that the mountain areas have experienced the most severe depopulation among all of the rural areas where the population increase has decreased by 30 percent on average for the last 30 years. The decreasing rate of 40.8% in the mountain areas contrasts with population increase of 60% for the nation during the last 30 years.

The depopulation in mountain areas started since 1970's, relatively late comparing to the other regions, and became more severe in the later period 1985-1990.

Among the mountain areas, 62.7% of rural sub-counties have lost more than a half of their population for the last 30 years while only 13.2% have gained or maintained their population size.

The results of study imply that the severe depopulation in mountain areas have created the devastation of remote areas, thus the supply potential of labor for forestry operations will be limited due to the depopulation problems in mountain areas.

Key Words: Mountain-Village Area, Population Change, Classification

I. 緒論

지역내 산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울러 높은 곳에 위치하는 산촌지역에서의 인구변화는 그곳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잘 대변한다. 사회경제적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는 산촌지역의 인구가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사

회경제적 상황이 변화해 되면 산촌지역의 인구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도시로부터 차츰 외곽지역으로 토지수요에 의하여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우리나라 산촌지역에서의 인구변화현상은 토지수요에 의한 자연적인 인구이동이라기 보다는 급작스런 사회경제의 변화에 의한 강압적인 인구

1.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College of Forest Resources, Seattle, WA98195, U.S.A.

2.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won 441-744, Korea.

이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토지수요에 의한 인구이동은 매우 완만한 인구변화를 보이게 되지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그리고 조선후기의 사회혼란 등과 같은 사회경제불안요소에 의한 인구이동은 산촌지역의 급격한 인구변화를 야기한다. 특히,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산촌지역에서의 화전민의 급성장은 사회경제불안에 의한 산촌지역의 급격한 인구변화의 단적인 예이다.

1960년대 산업화이전까지 산촌지역은 국토의 정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1960년대 이후 공업화 및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공업 및 산업기지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이 진행되면서 이들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일어나 차츰 산촌지역은 초창기의 정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경제개발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산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국토공간상에서 과소화지역 또는 공동화지역으로 전환되었다(藤原三夫, 1993; 坂本一敏, 1969; 山村振興調査會, 1969). 심지어 제3차 국토개발 10개년계획에서 특정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인구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산촌지역에서 인구감소현상은 경제성장이라는 성장논리에 가리워져 불가피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정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크게 문제로서 제기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러한 산촌지역에서의 인구변화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산촌지역에서의 인구변화가 그 지역의 성장발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지난 수십년간의 성장발전과정에서 산촌지역이 국토공간에서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었는가를 비교적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는 산촌지역을 평야지역이나 중간지역 등 일반적인 농촌지역과 비교하므로써 상호간에 나타나는 근본적 차이를 제기할 수 있고, 더욱이 산촌지역내에서

도 지역간 발전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인구변화 양상을 통하여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인구관련변수를 활용하여 산촌지역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파악하고 변화 유형을 분류하므로써 산촌지역내에서의 변화상의 차이를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研究方法

1.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 산촌지역은 김의경, 손철호(1995)의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산촌지역, 중간지역, 그리고 평야지역중에서의 산촌지역과 일치하며¹⁾, 이 연구는 산촌지역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써 이전 연구의 연장선장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촌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파악하므로써 산촌지역이 갖는 변화 즉, 인구변화 전개과정과 관련한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일차적으로 기존 산촌지역 구분시 적용되었던 1990년말 현재의 전국의 1,419개 읍면단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형화분석에서는 이 중에서 1960년에서 1990년사이에 행정구역 조정으로 지역의 면적에 변화가 있었던 곳을 제외²⁾ 한 총 900개 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거 30년 동안 邑面의 신규설치는 1990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1986년에서 1990년간의 불과 5년사이에 1986년이전의 과거 25년간 분할 신설된 읍면지역수보다 훨씬 많은 수가 분할 신설되었다. 그러나 읍면지역내 일부 법정리의 이전 또는 편입 등의 행정구역 조정유형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표 1).

1. 김의경·손철호(1995) "산촌지역의 구분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의 연구결과 얻어진 구분지역을 의미한다.
2. 행정구역조정을 경험한 읍면지역을 제외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의 인구변화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써 마치 그것이 사회경제변화에 의한 것으로 그릇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구역 조정중 지역내 1개 법정리중 일부 마을의 조정과 같이 그 조정실태가 미약한 읍면지역은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 시기별 행정구역 조정 유형

변화유형	변화시기	단위 : 읍면개소			
		1960~1966년	1970~1975년	1980~1985년	1986~1990년
변화없음		1,391	1,235	1,225	1,258
신규 읍면*		2	2	19	32
분할 읍면**			2	20	31
읍, 면 통합		3			
1개 법정리 이전		8	53	32	24
1개 법정리 편입		3	20	20	10
2개이상의 법정리 편입		7	68	47	37
2개이상의 법정리 이전		5	39	56	27
제		28	184	194	161

* : 신규읍면은 기존의 1개 읍면지역에서 분할되거나 또는 몇개의 다른 읍면중 일부 법정리를 묶어서 새로이 설치된 경우이다.

** : 분합읍면은 신규읍면이 분할되어 나간 경우의 기존 읍면을 의미한다.

연구에 활용된 인구관련자료는 1960년대 이후에 실시된 매5년단위의 인구센서스 또는 인구총조사 보고서의 인구 및 가구 통계로서 인구는 주로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5년단위의 관별자료로 연년단위의 시계열자료와는 다소 다르다. 또한 산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인구 및 가구변화의 파악을 위해서 1930년대의 인구 및 가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산촌지역의 인구변화 유형화를 위해서 산촌지역 인구관련 변수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인구관련 변수들의 시기별 다양한 변화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인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주인자분석법(principal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이러한 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산촌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PC 6.0 version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주인자분석법에서는 선정된 변수들로 이루어진 11×900 행렬을 대상으로 주인자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고유치가 1.0이상인 n개의 인자만을 대상으로 한 $n \times 11$ 인자행렬을 구한 후, 이를 전체 11×900 행렬에 적용하여 $n \times 900$ 인자독점행

렬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군집분석에서는 인자득점행렬을 이용하여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므로써 각 군집이 갖는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III. 結果 및 考察

1. 산촌지역에서의 인구 및 가구 변화

1) 인구변화

1960년에서 1990년까지 과거 30년 동안의 매 5년 단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 구분한 5년단위, 10년단위, 1990년기준 등 각 시기별 인구변화에 관한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각 구분지역별 이들 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고, 과거 30년 동안의 각 구분지역별 매5년단위의 인구변화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이들 각 변수들을 전국적 또는 구분지역별로 검토해 보면, 매 5년 단위의 구분지역별 인구변화 추이에서 전국인구는 지속적인 인구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국 읍면 행정구역에서는 1960년에서 1966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읍면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가 도시지역으로의 유입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거 1960년 당시 28.0%에 불과한 도시화율이 1990년에는 무려 74.4%에 이르는 도시지역의 인구 집중화 현

〈표 2〉 구분지역별 인구변화 추이(평균값)

단위: %

시기구분	전국	평균	각 구분지역별 인구변화		
			산촌지역	중간지역	평야지역
60 ~ 66	16.68	13.19	15.64	13.09	11.3
66 ~ 70	6.34	9.34	8.5	9.4	9.8
5년 단위	70 ~ 75	11.92	2.03	4.1	1.8
75 ~ 80	7.86	15.20	20.3	15.1	11.0
80 ~ 85	7.44	12.35	16.9	12.3	8.5
85 ~ 90	7.59	14.88	22.4	-14.2	9.8
10년 단위	60 ~ 70	24.00	3.11	6.49	2.98
	70 ~ 80	20.73	16.54	23.61	16.31
	80 ~ 90	16.25	24.65	35.54	24.41
'90년 기준	60 ~ 90	74.15	30.12	46.72	28.60
	66 ~ 90	49.25	39.91	54.32	39.61
	70 ~ 90	40.35	34.62	49.33	34.38
	75 ~ 90	25.39	34.43	48.26	34.28
					23.16

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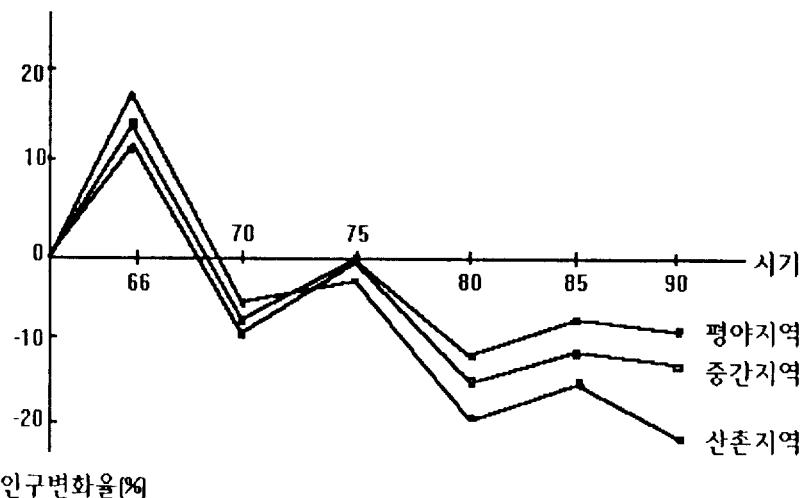
각 구분지역별로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 전반부에는 각 구분지역간에 인구의 성장 또는 유지를 보이지만, 1960년대 후반부 이후로는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현상이 1960년대 후반에는 평야지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1970년대 이후로는 산촌지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산촌지역에서의 인구감소 현상은 평야지역이나 중간지역에 비하여 다소 늦게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의 수집과 도시집근성이 용이한 평야지역부터 인구감소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정보수집과 도시집근성이 불리한 산촌지역에서는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가장 극심한 인구감소가 이루어졌다.

매 10년 단위의 인구성장율을 보면, 1960~1970년 사이의 전국인구변화율은 24%로써 매우 높은 인구성장을 보이지만, 읍면지역은 불과 3.1%의 증가에 그치고, 1970~1980년과 1980~1990년 이후로는 전국인구성장율과는 극히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 1980~1990년 사이에 읍면지역의 인구감소가 가장 극심하였고, 특히 산촌지역의 경우는 이 기간동안에 35.5%의 높은 인구감소를 기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과거 30년간 전국인구는 74.15%의 높은 증가를 기록하였지만, 읍면지역은 30.12%의 감소를 기록하므로써 극심한 인구변화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가 많았던 1966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0년까지의 인구변화를 보면, 산촌지역은 54.3%의 인구감소를 보여 1966년 당시의 인구에 비하여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인구수준이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산촌지역, 중간지역, 평야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인구변화의 시대별 추이와 관련한 인구자료중에서 매 5년 단위의 인구변화율 관련 변수, 10년단위에서는 1966~1975년 인구변화율 변수, 그리고 1990년 기준에서는 1975~1990년 인구변화율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기서 인구관련 자료 모두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일부자료들의 경우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적인 인구변화 특성을 불투명하게 하여 각 읍면단위의 인구변화특성을 명확하게 밝히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1966년~1975년 사이의 인구변화를 포함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읍면단위별 인구변화율이 심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고, 1975년에서 1990년 사이의 인구변화율 변수를 포함한 것은 이 기간 동안은

3. 농계정, 1996, 한국통계연감, p.58.



〈그림1〉 매 5년 단위의 과거 30년간(1960~1990) 구분지역별 인구변화 추이

대부분의 읍면단위에서 동일한 패턴의 인구변화를 보이면서 아울러 그 변화량에 있어서는 심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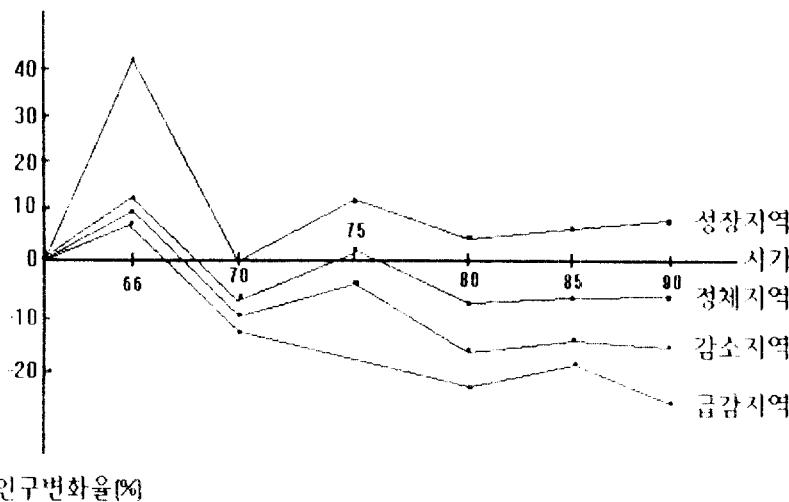
2) 각 구분지역별 인구변화 패턴

앞에서는 인구의 변화를 각 구분지역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각 구분지역내 각읍면단위별로 인구변화양상을 살펴보자 하며, 이를 위하여 인구변화패턴을 성장, 정체, 감소, 급감 등 크게 4개로 구분하였다. 성장패턴은 대상지역이 단위기간 동안 최소한 초기년도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써, 단지 인구증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체패턴은 읍면지역의 평균인구감소율인 30.1%이하의 인구변화율을 보이므로써 전체읍면지역의 인구변화수준을 유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감소패턴은 정체패턴보다 인구감소현상이 심하지만, 초기년도 인구의 절반수준까지 인구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반면에 급감패턴은 인구감소현상이 극심한 경우로서 초기년도의 인구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인구수준을 말기년도에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구변화패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인구변화패턴의 구분기준

인구변화패턴	구 분 기 준
성장	단위기간동안 인구변화율이 0%이상
정체	단위기간동안 인구변화율이 0%~30.1%
감소	단위기간동안 인구변화율이 30.1%~50.0%
급감	단위기간동안 인구변화율이 50.0%

과거 30년간의 인구변화율을 기준으로 한 각 인구변화패턴의 시대별 인구변화율을 살펴보면, 전기간 동안 각 패턴별로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1980년 이후로는 성장지역과 정체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현성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감소지역과 급감지역의 경우는 1980년대 전반기에 인구증가현상을 보이다가 1980년대 후반기에는 인구감소현성으로 반전하면서 1985~1990년 기간동안에는 각 패턴지역간에 인구변화율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토·공간상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농산촌지역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시기별 인구성장 유형에 의한 구분지역별 농산촌의 인구변화 추이

각 시대별 인구변화패턴을 살펴보면,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는 성장과 정체가 주를 이루었으나, 1970년에서 1980년에는 정체가, 그리고 1980년에서 1990년에는 정체와 감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1980년에서 1990년 사이는 전체 조사대상 읍면지역 중 46.7%가 30.1% 이상의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어, 1980년대의 인구 감소폭이 다른 시기에 비하여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패턴을 1960년에서 1990년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각 구분지역간에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구 변화패턴 중 증가에 속한 읍면지역은 전체 분석

대상 읍면지역 중 10.6%에 해당하는 96개 읍면지역이며, 각 구분지역별로는 평야지역, 중간지역, 산촌지역의 순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읍면지역 평균인구변화율이 성장과 정체의 인구변화패턴에 속하는 읍면지역은 전체의 25.8%에 해당하며, 구분지역간에는 평야지역이 37.7%로 가장 많고, 산촌지역은 13.2%에 불과하다. 산촌지역의 경우 극히 일부 즉, 25개 읍면지역만이 성장과 정체지역에 포함되며, 산촌지역의 62.7%는 과거 30년간 인구감소율이 50% 이상인 급감지역으로 분류되므로써 산촌지역에서의 인구감소가 어느 정도 극심하였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별 인구변화패턴 발전과정을 산촌지역만 대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표 4. 시대별 인구변화패턴의 발전과정

단위: 읍면수, %

구 분	매 10년 단위			주 기간 (1960년~1990년)
	1960~1970년	1970~1980년	1980~1990년	
성 장	330	99	81	96
정 체	565	680	381	137
감 소	4	118	421	298
급 감	1	3	17	370

〈표 5〉 구분지역별 과거 30년간의 인구성장패턴의 비교

단위: 읍면수, %

구 分	과거 30년간의 인구성장 패턴				계
	성 장	정 체	감 소	급 감	
산촌지역	8(4.2)	17(9.0)	45(23.9)	118(62.7)	188(100)
중간지역	49(10.0)	74(15.1)	163(33.4)	202(41.4)	488(100)
평야지역	39(17.3)	46(20.4)	90(40.0)	50(22.2)	225(100)
계	96(10.6)	137(15.2)	298(33.1)	370(41.1)	900(100)

〈표 6〉 및 그림 3과 같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기간 동안은 성장과 정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1970년대 이후로는 정체,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급감 지역은 197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70년대에는 2개 읍면지역이 급감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1980년대에는 7개 지역이 급감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급감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3〉은 1960년대의 성장유형을 중심으로 성장유형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표시한 것으로서 성장지역으로 구분된 지역 중 불과 2개 지역만이 1990년까지 성장지역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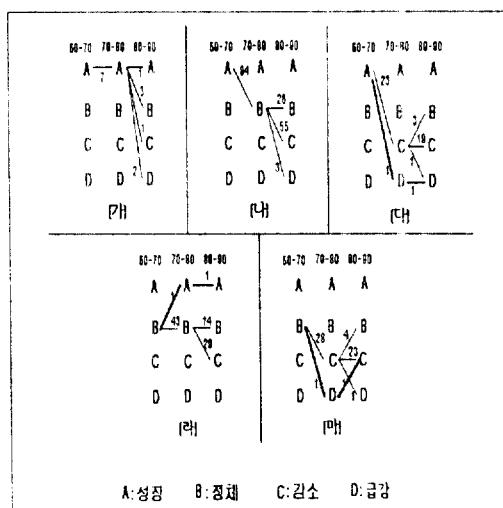
〈표 6〉 산촌지역에서의 인구 성장패턴의 발전과정

단위: 읍면수, %

구 分	1960~1970년	1970~1980년	1980~1990년
성장(0% 이상)	115(61.2)	8(4.3)	2(1.0)
정체(0~30.1%)	73(38.8)	127(67.6)	51(27.1)
감소(-30.1~50%)		51(27.1)	128(68.1)
급감(50.0% 초과)		2(1.0)	7(4.2)

3) 인구변화와 가구변화와의 관계

가구관련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1970년부터 1990년까지 과거 20년 동안을 대상으로 인구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구분지역별, 시기별로 인구변화율과 가구변화율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인구변화특성은 지역내에서의 인구의 유출현상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가족구성원단위로 이루어졌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구변화율 대비 가구변화율에 의



〈그림 3〉 산촌지역의 성장유형의 전개과정

한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인구변화율대비 가구변화율의 비교에서 인구변화율과 가구변화율이 비슷한 경우 즉, 가구구성원 전체의 인구이동이 많은 경우는 그 절대값이 "1"에 가깝지만, 그렇지 않고 인구변화율이 가구변화율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즉, 가족구성원중 일부만의 인구이동이 많은 경우는 그 절대값이 "0"에 가깝게 된다. 반면에 가구변화율이 인구변화율을 상회하는 경우 즉, 가구의 분화 내지는 기구단위의 인구이동이 많은 경우는 그 절대값이 "1"을 상회하게 된다.

각 구분지역별로 시기별 평균인구변화율과 평균가구변화율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표 7〉 구분지역별 인구 및 가구의 변화 비교

단위 : %

구 분	산촌지역			중간지역			평야지역		
	인구 변화율(A)	가구 변화율(B)	B/A	인구 변화율(A)	가구 변화율(B)	B/A	인구 변화율(A)	가구 변화율(B)	B/A
'70 ~ '75	-4.1	3.69	0.90	-1.8	-0.28	0.15	-0.6	0.89	-1.48
'75 ~ '80	20.3	9.84	0.48	15.1	-4.13	0.27	11.0	0.92	0.08
'80 ~ '85	16.9	4.66	0.27	12.3	0.59	0.04	-8.5	2.47	-0.29
'85 ~ '90	22.4	9.13	0.40	14.2	-2.80	0.19	-9.8	0.22	-0.02
'70 ~ '90	49.3	23.3	0.47	34.4	4.00	0.11	22.0	8.00	0.36

7)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분지역간에 인구변화의 차이 뿐만 아니라, 가구변화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20년간 (1970~1990)의 가구변화를 보면, 산촌지역의 경우 1970년 당시 전체 가구수의 23%가량이 줄어든 반면, 중간지역은 4%의 감소에 그치고, 평야지역의 경우 오히려 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의 공동화 또는 폐허화한 현상이 산촌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의 과소화 현상 뿐만 아니라 마을이나 지역의 공동화 또는 폐허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는 달리 평야지역의 경우 인구감소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구수는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으로써 비록 가구당 가족 구성원의 숫자는 줄어들지라도 지역내 가구수는 증가하므로써 지역의 공동화 또는 폐허화 현상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기별로 인구변화와 가구변화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산촌지역의 경우는 1970~1975년 사이에는 가구구성원 전체의 인구이동이 주를 이루었고, 1980~1985년 사이에는 가구원 일부의 인구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간지역의 경우는 과거 20년 동안 지속적인 인구 및 가구의 감소를 보이지만 주로 가구구성원중 일부의 인구이동이 주를 이루고, 인구변화율대비 가구변화율의 비도 크게 변화지 않았다. 반면에 평야 지역의 경우 1975~1980년을 제외하고는 높은 가구수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산촌지역만을 대상으로 제반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내 인구의 성장이 급신장하였던 1930년대 중반과 해방이후의 비교를 통하여 산촌지역에서의 인구 및 가구의 변화과정을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1930년대의 자료가 남북한을 합친 전국적인 자료라는 측면과 구분지표가 다르다는 한계는 갖고 있지만 시기적인 추이를 알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표 8〉 과거 55년 동안의 산촌지역 인구 및 가구변화추이

구 分	인구수	가구수
'35~'70년 변화율	29.3%	24.6%
'70~'90년 변화율	-49.33%	23.3%
'35~'90년 변화율	32.50%	4.50%

산촌지역에서는 1935년~1970년 사이에 인구는 29.3% 가구수는 24.6%로서 인구의 증가와 거의 같은 비율의 가구 증가를 보이므로써 동 시기동안 산촌지역은 지역사회의 확장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산촌지역은 1970년~1990년 동안에 인구 및 가구의 감소로 인하여 1935년에 비하여 인구는 32.5%, 가구수는 4.5%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산촌지역에서의 인구 및 가구의 변화는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인구의 공간상 확장이 아니라 공간적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인구변화 및 가구변화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70년~1990년 동안에 산촌지역에서는 인구 및 가구의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에 평야지역의 경우 인구는 감소한 반면에 가구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평야지역의 경우 인구의 감소가 가족가구원의 감소 즉, 가족구성원 일부의 유출에 국한되고 지역전체적으로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산촌지역의 경우는 인구의 감소가 가구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산촌지역은 지역내 공동화 또는 폐허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에 평야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1935년 이후 1970년 까지 산촌지역에서는 인구 및 가구수가 증가한 반면에 1970~1990년 사이에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여 1990년 말 현재 산촌지역의 인구 및 가구수는 1935년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2. 인구변화 유형화 및 검토

1) 인자추출

인구변화 유형화를 위한 인자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과거 30년 동안의 매5년단위 인구통계에 근거한 인구변화자료이며, 아울러 인구변화에 있어 시기별 차이를 보이는 기간인 1966~1975년의 인구변화율, 그리고 1975년에서 1990년 사이의 인구변화율이 포함되었다. 인자분석에 의하여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의 3개 인자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인자는 전체 인구변화의 79.5%를 설명하였다(표 9).

〈표 9〉 인구변화 특성 변수의 인자행렬
(Varimax 회전후)

	인자1	인자2	인자3	공통성
75 90년 인구변화	97*	20	3	0.553
60 90년 인구변화	86*	42	16	0.943
85 90년 인구변화	85*	11	11	0.748
80 85년 인구변화	82*	4	13	0.687
75 80년 인구변화	78*	31	7	0.710
66 75년 인구변화	23	97*	3	0.989
66-70년 인구변화	7	76*	9	0.586
70-75년 인구변화	26	69*	6	0.553
60-66년 인구변화	1	6	99*	0.974
고유값	3.81	2.32	1.04	7.179
기여율 (%)	42.3	25.7	11.5	79.5
누적 기여율 (%)	42.3	68.0	79.5	79.5

각 인자별 특성을 파악하여 보면, 인자 1의

경우는 1975년 이후 인구변화 및 1990년을 기준한 1966년이후 인구변화를 대표하는 인자이며, 인자 2의 경우는 1966년에서 1975년까지의 인구변화를 대표하는 인자이다. 그리고 인자 3은 1960년에서 1966년사이의 인구변화를 대표하는 인자이다. 따라서 인자 1은 '1975년~1990년까지의 인구변화', 인자 2는 '1966년~1975년까지의 인구변화', 인자 3은 '1960년~1966년까지의 인구변화'로 각각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2) 군집분석 및 검토

인자분석 결과 얻어진 인자득점행렬을 이용하여 Ward방법에 의한 군집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군집간의 거리가 급격히 변하는 군집수 3, 5, 9를 각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기준으로 군집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분류단계에서 2개읍면지역은 각각 특정군집에 속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므로써 군집구분에서 제외시켰고, 아울러 나머지 중분류와 소분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군집분류에 포함된 지역수는 총898개 읍면지역이나.

대분류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군집 I에 포함되어 있으며, 산촌지역의 경우도 4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군집1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산촌지역의 경우 중분류 단계에서는 군집 A와 군집 B로 양분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소분류 단계에서는 군집 a, b, c, d에 주로 분포하여 나타나고 있다(표 10).

소분류 수준에서 산촌지역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군집 a, b, c, d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인구변화유형화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과거 30년 동안의 인구변화는 시기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1).

1960~1966년 사이에 군집 a와 b는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군집 c와 d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집 d의 경우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66~1975년 사이에는 군집 a, b, c에서 모두 인구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나, 군집 d에서는 오히려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75~1990년 기간동안에는 군집 a, c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1960~1975년 기간동안에 인

〈표 10〉 각 구분지역별 인구변화유형의 분포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유형	계	산촌 지역	중간 지역	평야 지역	유형	계	산촌 지역	중간 지역	평야 지역	유형	계	산촌 지역	중간 지역	평야 지역
군집 I	819	186	442	191	A	629	97	367	165	a	334	72	204	58
					B	190	89	75	26	b	295	25	163	107
	62	32	30	1	C	62		32	30	c	161	75	65	21
					D	9	1	7	1	d	29	14	10	5
군집 II	9	1	7	1	F	6		5	1	e	48		24	24
군집 III	8	1	6	1	G	2	1	1	1	f	14		8	6
					H					g	9	1	7	1
군집 IV	8	1	6	1	I	6		—	—	h	6		5	1
					J	2	1	1	1	i	2	1	1	1

〈표 11〉 산촌지역의 각 인구변화유형별 구분시기별 인구변화율

총 분 류	소 분 류	인자값의 평균비교			주요 시기별 인구변화율(%)			
		인자1	인자2	인자3	60~90	75~90	66~75	60~66
A	a	0.41	0.42	0.23	54.93	48.47	18.74	7.6
	b	0.36	0.08	-0.18	28.26	26.26	11.20	8.7
B	c	0.67	0.31	0.40	48.97	51.42	9.5	15.5
	d	0.50	1.91	1.65	7.49	39.46	14.37	30.9

〈표 12〉 소분류 단계의 산촌지역 인구변화 유형 특성

군집	60~66년	66~75년	75~90년	60~90년	특 성
a	약증가	감소	급감소	급감	60년초 감소, 극심한 감소지역
b	약증가	감소	약감소	약감	75년이후 감소, 상대적 적은 인구감소
c	증가	약감소	급감소	급감	75년이후 인구의 급격한 감소지역
d	급증	증가	감소	안정	60~75년사이 인구증가 및 인구안정지역

구증가를 기록하였다. 군집 d의 경우도 이 기간에 높은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군집 b의 경우는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전국 읍면지역의 평균 인구감소율인 -34.5% 보다 낮은 인구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구변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별 인구변화결과 각 군집의 과거 30년 동안의 인구변화율을 살펴보면, 군집 a는 가장 심한 인구감소율을 기록한 지역이며,

군집 b는 전국 평균 인구 감소율보다 낮은 인구감소율을 기록한 지역들의 군집으로서 1975~1990년 사이에 다소 안정적인 인구변화를 보인 지역이다. 군집 c는 높은 인구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 가장 높은 인구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군집 d는 인구 안정적인 지역으로 나타났지만 1975~1990년 사이에 인구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특성을 보인 지역으로 가장 뒤늦게 인구 감소가 나타난

지역이다.

이러한 군집이 갖는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군집별 인자값의 평균의 비교 및 각 인자값의 평균에 대한 분산분석(SNK 검증)에 의하여 〈표 12〉와 같은 각 군집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IV. 結論

과거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수차례 결쳐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되었고, 국토개발 10개년 계획에서 지역간 균형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촌지역과 같은 지역적 접근이 매우 불리한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의 지역격차는 오히려 극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60년에서 1990년까지 지난 30년간 1990년말 현재 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전국 비도시지역 즉,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한 평균인구변화율을 살펴본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읍면지역의 과거30년간 평균인구변화율은 -30.0%로써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인구변화율 60%와 비교할 때, 극심한 인구감소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산촌지역의 경우 인구변화율이 -40.8%로써 구분지역 중 가장 극심한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촌지역에서의 인구감소현상으로 산촌지역의 인구가 성장기에 있었던 1935년 당시의 인구에 비하여 1990년 현재의 인구수 및 가구수는 32.5%와 4.5%가 각각 감소하므로써 오히려 1930년대 중반의 인구 및 가구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불균형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제2차국토개발계획10개년 계획기간이후로 산촌지역의 인구감소가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다른 구분지역의 읍면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늦게 인구감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1985년에서 1990년사이에 가장 극심한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산촌지역에서 인구의 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곧 국토개발계획차원에서 산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이 매우 미흡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기별 인구변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촌지

역으로 구분된 읍면지역의 인구변화유형을 살펴본 결과, 산촌지역의 62.7%가 대부분 인구감소유형 즉, 과거 30년간 인구가 50%이상 감소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대부분의 산촌지역이 극심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단지 극히 일부지역만이 인구의 성장 또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연구결과 산촌지역 및 기타 구분지역에서 읍면지역간 다양한 인구변화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의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된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성장 또는 안정지역의 발전요인을 도출하므로써 산촌지역에서의 인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미래에 도래할 國產材時代에 대비한 산촌지역 임업노동력의 수급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촌지역에서의 인구변화를 야기한 사회경제 환경 및 산림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도 산촌지역에서의 인구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여겨진다.

引用文獻

1. 김의경, 손철호. 1995. 산촌지역 구분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84(3): 343-355.
2. 통계청. 1996. 한국통계연감. 446pp.
3. 藤原三夫. 1993. 山村の産業構造と就業構造. 林業經濟研究 124:12-21.
4. 山村振興調査會. 1969. 過疎問題と山村振興. 古今書院. 326pp.
5. 坂本一敏. 1969. “山村問題와 山村未來像”. 「過疎問題와 山村振興」 山村振興調査會 編. 古今書院. 326pp. pp. 195-205.